

원불교의 세계화

보산 고문국 종사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원불교는 그 개교(開敎)의 동기(動機)를 ‘일체 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 하려 한다’고 하였으므로 세계화를 지향하고 탄생한 종교인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한국 내의 교화가 아직 충실하지 않았던 50여 년 전부터 그 세계교화의 막은 열리기 시작하였고, 현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설립된 많은 교당과 기관들이 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얼마 전, 취임한 전산 종법사가 교단의 세계화를 강조함에 따라 교단이 미주지역을 관할하는 해외 총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펼 수 있음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

세계교화, 국제교화는 어느 종교에게나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교화 대상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 문화, 습관, 전통, 개념, 사고방식 등의 장벽을 충분히 극복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이 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전 준비와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일 것이다. 성공적 국제화는 현지인들에 대한 초기교화를 넘어 현지인들을 교화담당자로 육성함으로써 원불교를 그곳에 토착화시키는 상태에 도달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Frederick M Ronallo-Higgins(이하, Fred)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Fred는 미국 중서부에서 성장한 백인 남성으로서 일찍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중 미국에 체류하던 원불교 교무의 인도를 받아 한국으로 건너와, 익산과 영산에서 20년 동안 간사와 예비교무 과정을, 그리고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Won Institute of Graduate Studies 이하, 미주선학대학원)의 조교 과정 등을 거쳐 원불교 교무로서의 자격을 거의 갖춘 미국인인바, 금년(2019)도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UCLA)에서 원불교에 관한 주제의 논문을 완성하고 철학박사 학위(Ph.D, 지도교수: Buswell)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 그는 『원불교전서』에 수록된 제 항목 내용은 물론 그들의 수정 또는 변천 과정 등에 대한 견해를 자신의 수련체험담과 함께 상세히 보고하고 있어 국제 종교학계의 상당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드문 업적을 이룬 것 같다. 그런데 그의 논문이 많은 원불교인들을 펍 실망시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에게 쏟았던 장기간에 걸친 교단적 노력이 그 정도의 성과에 그치고 있음을 발견하고 실망을 넘어 배반감마저 느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 교화가 한국인 교화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는 20년간 한국인들을 위한 교화·훈련을 함께 충실히 받아 왔었지만, 언어와 감성소통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그 진수를 충분히 소화 흡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원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내에서도 여러 면에서 교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지만, 해외교화에서는 오죽하겠는가. 한 기업체 총수가 그 직원들에게 마누라만을 뺀 모든 것을 바꾸어야 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일화가 생각난다. 만약 해외 교당이 현지인들을 외면한 채, 한국 교민들만을 상대로 국내에서와 다른없는 한국식 교화를 일삼고 있다면 그것은 해외교화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래 존속될 수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교단은 뒤늦게나마 2002년 미국에 미주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영어권을 위한 교역자를 교육 양성하게 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미주 또는 영어권 교화에 대한 교단적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원불교의 세계화는 제대로 충분히 기획되거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 진행되어왔음을 시인하고 반성하여 이제는 교단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롭게 국제교화를 기획, 추진하기를 염원해 본다.

국제화는 교단적 현지화와 교역자 개개인의 창의적 활동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교단적 현지화는 교단의 모든 구성원과 조직이 현지에 동화된 상태에 도달함을 말한다. 타향에 가면 그곳의 것에 따른다는 식이다. 그래서 문화권별의 해외 총부가 필요하게 된다. 『교헌』이나 모든 운영법과 규정을 현지의 것들과 대조해서 그에 따르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원활히 정착하기 어렵고 현지인들이나 기관들과의 마찰을 빚어 배척까지 받게 된다. 미국 교당 근무의 한 젊은 교무로부터 변호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상의를 받은 적이 있다. 교당을 운영하는 중, 복잡하고 미묘한 규정들을 접하니 법학 공부가 절실했더라는 것이다. 법률과 규정뿐만 아니다. 복장이나 머리 모양에서도 그렇다. 미국에서 교역자의 독특한 복장과 머리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나 회교 교회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시내의 어느 곳에서나 자리 잡지 못한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미국에서도 주변 일반인들의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건물의 구입 사용과 신축, 개축의 경우 인근 지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허가되고 있다. 그러니 현지의 규정과 관례들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본인도 미국에서 근무할 동안의 일들을 회상할 때, 그곳에 오래 정착하여 제반 사정에 능통한 재가 교도와 그의 현지인 친구들(변호사 포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덕택으로 갖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자신이 현지화되지 못하였다면 현지화된 이를 스승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智者本位).

교역자의 겸허한 자세와 현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지인 교화 대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그들의 관습과 취향을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미주선학대학원에서의 2년의 석사 과정은 최소한의 과정이고 지속적인 추가 연수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미주선학대학원은 그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미 교역자들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현지 적응을 백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원불교학과에 좋은 현지인 교수들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면을 고찰할 때, 미주총부가 새로 자리를 잡는다면 지리적으로 미주선학대학원과의 협력이 보다 용이하도록 선정하기를 바라고

싶다. 정산 종사가 한때 여론화되던 원광대학교의 서울 이전을 만류했었던 고사를 회상한다.

끝으로 성공적 국제화는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이루어지리라는 말을 첨가하고 싶다. 모두가 새로운 원불교 교단을 그곳에 창립한다는 심정으로 대종사의 지혜와 창의력을 닮고 본받도록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대종사의 대도정법을 현지에 맞게 대중화, 시대화, 생활화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언답 막기, 옛장사의 방법을 가릴 것 없이 그때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략을 본받는 일이다. 현재 미국에는 여러 지역의 교당과 함께 미주선학대학원, 원달마센터 그리고 맨하탄 교당 등 상당한 물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적 자원의 활용에도 언급하고 싶다. 현지에 정착한 재가 교도들은 교단 국제화의 큰 자원이다. 더구나 미국 학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유산 정봉길 원로 교무는 어떠하랴. 그분은 『교전』과 『정산종사법어』의 번역본을 각각 하와이대학과 뉴욕주립대학의 출판부에서 발간하여 원불교의 위상을 높여 주었다. Fred와 같은 신진들을 포함한 원불교 학자들 그리고 미국에서 수련을 쌓았으나 국내 기관에서 근무 중인 미주선학대학원 출신의 교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미주 현지교화에 활용하는 길은 없을까. 연구할 일이다. 모두가 간격 없이 잘 융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Fred가 그의 논문에서 초기 교단에서 금기 또는 무시되었던 남녀간, 재가·출가간, 성적 경향(동성연애)등의 차별이 생겨나면서 교단이 훨씬 경직화, 편파적 경향을 띠어 간다고 지적하였는데, 다시 교단 초창기와 같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회복하여 모든 국제화를 훌륭히 성취하고 세계를 불은화(佛恩化), 낙원화하기를 기대하고 싶다.

이 강연을 마무리 하면서 본인은 대산 김대거 종사님의 국제교화에 대한 비전과 경륜을 회상하며 감사 드리고 싶다. 종법사 재임 중의 교헌 개정에서 해외 총부와 해외 종법사 설치의 조항(교헌 제8조)을 많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여 창설해 놓았다. 그리고 얼마나 국제교화와 세계화를 염원하셨기에 제주와 하와이에 훈련원을 설립하게 하고 그들 명칭에 “국제”자를 넣어 국제훈련원이라 명명하시고 더구나 운명 직전 무렵 하와이국제훈련원을 방문, 정양 기도하시며 종교국제연합 창설을 염원하셨다 한다. 그리고 열반에 당하여서는 미주선학대학원 설립의 유지를 남기셨으니 교단이 대산 종사의 국제화에 대한 웅대한 기상과 포부의 구현에 일치 협력 하리라 믿는다.

< 참고 >

Fred의 박사학위논문:Frederick M. Ronallo-Higgins, “Redacting Buddha: Sacred Scripture and Religious Identity in the Korean Religious Movements of Won Buddhism”. UCLA Ph. D. dissertation, 2019